



벌초 절정 추석(19일)이 다가오자 8일 광주시 남구 화장동 인근 조상의 묘지를 찾은 일가족들이 벌초를 하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 곳곳에는 벌초차량이 물러 정체를 빚기도 했다.

▶남명기자 mjna@kwangju.co.kr

벌초대행에, 웃돈 주고 성묘 부탁도...

광주 북구 석곡동 벌초대행단 따라가보니...

이른 아침 인적 없던 광주시 북구 석곡동 인근 야산이 갑자기 예초기 소리로 가득 찼다. 7일 오전 6시40분 석곡동 야산을 찾은 벌초 대행단은 사람 키 높이까지 웃자란 잡초에 가려 찾가지 어러웠던 묘를 20여분 만에 말끔하게 단장했다. 석곡동 주민들로 구성된 8명의 벌초 대행원들은 이날 묘 8기를 작업했다. 새벽부터 시작한 벌초 작업은 오전 11시 가까이 돼서야 마무리가 됐다. 문병도(58)씨는 “오전 7시부터 작업을 했지만 의뢰한 작업이 많으면 새벽에도 나온다”고 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 대행을 의뢰한 건수가 늘면서 최근에 부족 바빠졌다고 한다. 지난 8월 이후 의뢰받은 건수만 100기가 넘는다. 벌초 대행업이 첫 등장했던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 달 10여건에 불과했던 의뢰 건수가 10배가 넘게 늘어났다는 게 문씨 설명이다. 여기 뿐 아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의 경우 전남 22개 시·군 90개 지역 농협의 벌초 대행 건수만 보더라도 2011년 2350건, 2012년 2408건, 2013년 2545건 등으로 매년 5% 정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지역을 관할하는 광주농협도 지난 2011년 20건 남짓이던 대행 의뢰 건수가 올해는 60건으로 늘어났다. 대부분 고향을 떠나 서울 등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고향화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 것이 한 요인이다. 여기에 “조상의 묘를 스스로 돌보는 것이 후손의 도리라는 생각이 앞섰던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성태욱(61)씨는 “조상 묘를 돌봐

야 한다는 생각이 중요하지, 직접 돌보느냐, 다른 사람 손을 빌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의뢰인은 아예 웃돈을 얹어주면서 성묘까지 대신 해달라는 의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성씨는 “지금 50대가 나이 들면 더 이상 벌초할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특히 도시인은 예초기를 다룰 줄 몰라 앞으로 벌초를 남의 손에 맡기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의 묘지만, 조상의 묘를 돌보는다는 생각이 벌초만 하는 건 아니다. 같

10년 새 대행 10배 늘어
한 달에 100여기 작업
고향사람이라 싸게 받아
5만원에 진입로 정리도
벌집 건드릴때 가장 위험

아 한다는 생각이 중요하지, 직접 돌보느냐, 다른 사람 손을 빌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의뢰인은 아예 웃돈을 얹어주면서 성묘까지 대신 해달라는 의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성씨는 “지금 50대가 나이 들면 더 이상 벌초할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특히 도시인은 예초기를 다룰 줄 몰라 앞으로 벌초를 남의 손에 맡기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의 묘지만, 조상의 묘를 돌보는다는 생각이 벌초만 하는 건 아니다. 같

은 고향 사람이라는 생각에 1기당 5만원을 받고 후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들여 진입로부터 풀을 베는 ‘수고’도 아끼지 않는다. 벌초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진동이 심한 예초기를 다루기가 여간 쉽지 않고 자칫 쇠파가 돌이 닿아 튀면 큰 부상을 입는 경우도 발생하는 탓에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옆에서 지켜보는 내내 자잘한 돌들이 튀어 올랐다. 여기에 벌도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무더위에 불편하다는 점 때문에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고 나섰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다는 것이다. 벌초 작업 전 긴 막대기를 이용, 풀을 뒤지며 벌집을 확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씨는 “날씨가 시원할 때는 벌로 얹지만 햇볕이 좋을 때는 벌집을 잘 못 건드려 도망가는 일도 많았다”고 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경찰 집안서 술~ 술~ 새는 바가지

광주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거세다. 음주 운전 근절에 치안력을 집중하고 있는데도, 소속 경찰관이 만취 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서다. 정순도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음주 운전 근절을 핑계는 게 무색할 정도다. ‘소 귀에 경 읽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서부경찰은 8일 만취한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서부경찰 소속 A경위(49)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6일 새벽 1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S 빌딩 앞 광주경찰청 “음주운전 척결” 주간·야간 대대적 단속 중 경찰관 음주운전 잇단 적발...시민들 “집안단속부터 하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당시 차선을 넘나들며 곡에 운전을 하다 음주 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한 시민은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난폭하게 운전하다 사고가 날 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출동할 당시 A경위는 차안에 혼자 타고 있었고 신고자도 맞은편 차선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러나 A경위가 “친구가 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따라 차량용 블랙박스 화면 및 신고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경위는 “항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북부경찰 소속 B(41)경사도 지난 6월 2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광주광산경찰 소속 C경사도 지난 1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는 보도 자료까지 내며 음주 운전 근절 분위가 점차 예민해지고 있다. A경위는 “항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디자인과 이념은 별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인공기’ 작품 다시 설치

작가들 철거에 강력 반발

북한 인기 이미지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철거됐던 2013 광주비엔날레 전시작이 하루만에 다시 설치됐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지난 5일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한 동시입장 기원 국기 디자인 색선 작품 89점 중 인공기 이미지 작품 11점을 철거했다 논란(광주일보 9월 6일 6면)이 일자 6일 오후 해당 작품들을 다시 전시했다. 소동은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예산 20억원을 지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주시에 “인공기 이미지가 들어간 작품들이 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벗어났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서 유선방송 대표 자살

지난 5일엔 전 본부장 자살 ... 경찰 수사 나서

광주 한 유선방송사 간부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A모텔 5층 객실 화장실에서

광주 한 유선방송 대표이사 황도(47)씨가 목을 매 숨겨 있는 것을 모델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모델 직원은 경찰에서 “퇴실 시간이 됐는데도 아무런 소리가 없자

(객실에) 가봤더니, 황씨가 숨겨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이날 새벽 무숙했고 방에서는 “3일 전 자살한 간부에게 미안하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앞서 지난 5일 새벽 5시50분께 광주

“왜 설거지 시켜?” 엄마 뺨때린 스무살 딸

딸과 엄마가 서로 뺨을 때리다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서부경찰은 8일 집안 일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다 서로 폭력을 휘두른 부모를 두고 이 과정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인 혐의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병수발 했더니 때려?” 60대 女 남편 둔기 살해

광주북부경찰은 8일 수년간 병간호해온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여·6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A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남편(70)을 둔기로 3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3타경 17016	1	사용본거지: 황봉천 풀이엔 일제초이하불상 등본번호: 전남02차 6036 기종: 굴삭기 연식: 2006	중기	62,000,000 62,000,000	본관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10-11-11[제일건설기계매상사]
2013타경 17023	1	사용본거지: 동소 보관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용두동 1011-11[제일건설기계매상사]	중기	72,000,000 72,000,000	본관장소: 전남02차 5924 기종: 굴삭기 연식: 2007
2013타경 17801	1	사용본거지: 목포시 북색로 134번일이하불상 등본번호: 전남02차 5924 기종: 굴삭기 연식: 2003	중기	75,000,000 75,000,000	본관장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안가동 592-20
2013타경 13618	1	사용본거지: 안성시 광동읍 안수로31, 102 동 1502호[무영아파트] 등본번호: 27라6014 차명: 산타페[SANTAFE]식: 2010	자동차	17,000,000 17,000,000	본관장소: 광주광역시 남구 신성동 156번 대주차장
2013타경 15331	1	사용본거지: 광주 북구 하남대로 833번길(현 운암동) 등본번호: 87서6517 차명: 봉고 III 1톤 연식: 2007	자동차	7,000,000 7,000,000	본관장소: 광주광역시 남구 신성동 156-2 심산주차장
2013타경 13014	1	사용본거지: 광주 북구 하남대로 833번길(현 운암동) 등본번호: 87서6517 차명: 봉고 III 1톤 연식: 2007	자동차	7,000,000 7,000,000	본관장소: 광주광역시 남구 신성동 156-2 심산주차장
2013타경 13618	1	사용본거지: 대구 북구 대동로6길 23 [산적동] 등본번호: 27수2096 차명: 제이앤 연식: 2005	자동차	7,700,000 7,700,000	본관장소: 광주광역시 남구 신성동 156-2 심산주차장
2013타경 15331	1	사용본거지: 광주 북구 임동로 16번길 71일 등본번호: 83서8767 차명: 봉고III 1톤 연식: 2011	자동차	10,000,000 10,000,000	본관장소: 광주광역시 남구 신성동 156-2 심산주차장